

광주 연극 무대에 피어나는 민주·인권·평화의 꽃

연극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국제 연극축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제22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 5·18민주광장, 245전일빌딩, 미로센터, 예린소극장 등 광주 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연극으로 만나는 민주·인권·평화'를 가치로 내세운 이번 연극제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의 평화 정신과 연극의 의미를 함께 나눈다.

올해 연극제의 주제는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로, 연극으로 공감하고, 예술로 소통하며, 평화로 함께 나아가는 축제를 표방한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이어 오후 7시 30분에는 국내 초청공연 '황야의 물고기' (선유현 작, 정성훈 연출)가 개막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육설과 속임수, 화약 냄새가 가득한 서부 시대, 마을 사람들은 술만 마시며 시비를 일삼는 늙은 보안관 오셀을 처치하기 위해 돈을 모아 회대의 살인마 빅터를 불러들이고, 마을의 영웅 보안관 존이 이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간다.

평화연극제의 주제공연인 '총과 꽃의 춤' (양수근 극본, 한중선 연출)은 17일 오후 4시와 18일 오후 2시 동구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미로극장에서 관객들을 만



'제22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16일부터 1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등 광주 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유산' 공연 모습.

**‘광주국제평화연극제’ 16~18일 5·18민주광장 등서
재일동포 삶·고려인 강제이주 등 역사·정체성 조명
시민대학연극제·시민체움·국제포럼 등 프로 ‘다채’**

난다.

'총과 꽃의 춤'은 폭력 이후 인간이 다시 공존과 희망을 선택하는 과정을 신체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 총과 꽃, 춤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전쟁과 폭력, 생명과 평화의 의미를 풀어낸다.

해외 초청공연은 일본과 카자흐스탄 작품으로 구성된다. 일본 극단 달오름의 '치마저고리'는 17일 오후 6시와 18일 오후 2

시 예린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재일동포 2.5세인 김민수 대표가 연출하는 이 작품은 조선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의 시선에서 재일동포의 삶과 차별, 정체성을 들여다본다. 교복인 치마저고리를 둘러싼 기억과 상처, 조선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재일동포의 삶 속에 스민 역사와 정체성을 무대 위에 올린다.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초청공연 '유산'

(손 라브렌티·리스타나슬라브 작, 드미트리 스키르타 연출)은 18일 오후 4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 무대는 1937년 연해주 지역 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당한 역사를 담아낸다. 단순히 역사적 비극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고려인들이 새로운 조국을 찾고, 그 땅이 후손들에게 진정한 고향이 되는 과정을 그린다. 공연은 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로 진행된다.

시민참여 부대행사 '평화의 꽃이 피었습니다'는 17일과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준비된다.



해외 초청공연인 일본 극단 달오름의 '치마저고리'.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245전일빌딩 9층 다목적공연장에서는 시민과 대학 연극단체들이 참여하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 시민대학연극제'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여성민우회 명랑소년극단 시나페의 '우리도 사랑일까', 직장인극단DL의 '그들의 권리', 전대극회의 '봄, 손을 쥐다', 동신대 뮤지컬·실용음악학과의 '이방인'이 경합을 벌인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연극문화를 조명하는 국제포럼은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마련된다.

'두 개의 역사, 하나의 무대-한국과 카자흐스탄, 연극으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진행될 포럼에서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을 통해 본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역사와 고려인 공연예술의 의미, 디아스포라 문화와 정체성, 향후 공동연구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2027~2028년 공동연구와 현지조사, 학술교류, 공동출판, 대학 간 예술교류 등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폐막식은 오는 18일 오후 5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이날 시민 부대행사 참여 프로그램 수상자와 시민대학연극제 수상팀 및 개인상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진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민중의 한과 저항, 무대로 다시 만나는 ‘녹두장군’ 송기숙기념사업회, 남독극 16일·문학기행 31일 선보

배앳기고 짓눌린 삶 속에서 평등한 세상을 꿈꾼 농민들의 원과 한, 변혁의 정신은 송기숙 소설가의 대하소설 '녹두장군'에 깊이 새겨져 있다.

작품은 동학혁명을 배경으로, 이름 없는 민중의 삶과 투쟁을 그린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으로 촉발된 고부 민란에서부터 황토현 전투의 승리, 전주성 함락,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우금치 전투의 비극적 패배와 전봉준 장군의 압송에 이르기까지 동학혁명의 주요 흐름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녹두장군'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따라가는 데 머물지 않는다. 외세를 척결하고 백성을 구제하려 했던 동학혁명의 대의

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격랑 속에서 살아 가던 다양한 민중의 말과 표정, 분노와 희망을 함께 재현한다.

특히 전라도 말의 상징성과 해학성, 민중의 솔직담백한 정서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송기숙 문학의 힘을 보여준다.

이처럼 동학혁명의 정신과 민중의 삶을 담아낸 '녹두장군'을 시민과 함께하는 남독극으로 만나고, 작품의 배경지를 따라가는 문학기행으로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남독극 및 문학기행은 (사)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가 올해 5주기를 맞은 송기숙 작가의 문학 세계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



'시민과 함께하는 녹두장군' 출연진과 정양주 운영위원장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고, 원작 소설과 동학혁명, 민중문학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대한 대하소설을 무대 위 남독 형식으로 압축해 관객들이 작품의 핵심 서사와 동학혁명의 의미를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남독극은 고부 봉기부터 장흥 석대들 마지막 전투까지 동학혁명의 주요 장면을 가

려 뽑아 선보인다. 배우의 목소리와 관객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형식인 만큼, 화려한 무대 장치보다 말과 호흡, 장면의 밀도에 집중해 '녹두장군'에 담긴 민중의 언어와 시대의 긴장을 전할 예정이다.

총감독은 김선출, 제작은 정양주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총연출은 정지막 전투까지 동학혁명의 주요 장면을 가

은숙 송기숙 문학 연구가가 담당했다. 이들은 소설 속 주요 장면을 남독극 형식에 맞게 재구성해 송기숙 문학의 힘과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전한다.

체화된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남독극은 송기숙 선생의 대표 대하소설 '녹두장군'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동학혁명의 정신뿐 아니라 작품 속 방언과 속담, 민중의 언어가 지닌 힘을 무대 위 목소리로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독극을 통해 전봉준을 역사 속 인물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가까이 느끼고, '녹두장군'의 문학적 매력을 새롭게 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정읍·고창 문학기행 역시 그 연장선에서 작품의 배경지를 직접 찾아가며 소설과 동학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녹두장군'은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문화재단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오는 31일에는 소설 '녹두장군'의 배경지인 정읍을 소개할 대교 문학기행을 진행. 작품 속 공간을 직접 찾아가며 소설의 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되새긴다.

한편 고 송기숙 작가는 1936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유신체제, 5·18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소설가다. 그는 대하소설 '녹두장군'을 통해 민중해방의 선구자 전봉준의 삶과 동학혁명의 정신을 그려냈다. (사)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는 송기숙 작가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출범했으며, 남독극과 문학기행 등 시민들이 그의 작품과 시대정신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가관으로 시작된 교류...이제 ‘캐나다통’이 됐다

캐나다 문화예술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축적해온 이강하미술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광주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캐나다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매개가 돼 지속적으로 교류를 펼쳐온 끝에 이제 '캐나다통'으로 자리잡아가는 형국이다. 국제문화교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강하미술관은 광주문화재단 2026 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국제교류 프로젝트로, 한국·광주와 캐나다·킨가이트(Kinngait)의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획전을 지난 2일 개막. 오는 18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소재 예술 문화 복합공간 401 Richmond에서 '내일의 기억, 무등의 오로라'라는 타이틀로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2023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캐나다 현대미술 축제인 '누이블랑쉬'와 연계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한국과 캐나다 간 지속적인 문화예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교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캐나다 예술가



토론토 전시장을 방문한 이선 실장 (오른쪽 첫번째)과 김설아 작가(왼쪽 첫번째)가 캐나다 큐레이터 윌리엄 허프먼(왼쪽 두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들이 '우리의 현재와 내일의 기억'을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 세대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 큐레이터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실장과 캐나다 큐레이터 윌리엄 허프먼(William Huffman)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광주 작가 4명과 킨가이트 작가 5명 등 총 9명의 작가가 참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에서는 김희상 조경태 김설아 이조흠 작가 등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경험

한 김희상 작가와 조경태 작가는 광주의 역사와 민중미술의 의미를 넘어 한국의 전통적 사상과 역사적 사건 이후의 현재, 그리고 일상의 풍경을 회화와 도자 작품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역사적 경험이 동시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제적인 시각에서 질문한다. 1980년 이후 세대인 김설아 작가와 이조흠 작가는 개인의 경험과 서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자유와 공동체, 연대의 가능성을 회화와 설치작



김설아 작 '새벽별의 카프카'

업으로 표현. 개인적인 기억을 넘어 동시대 사회의 관계와 공동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2024년 한국-캐나다 북극 리서치 프로젝트로 제작된 공동작 작품도 함께 출품됐다. 광주와 킨가이트의 예술가들이 서로 다른 자연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며 만들어낸



이조흠 작 'gidoong and gori_pla'

공동의 결과물을 통해 두 지역의 예술적 만남과 교류의 과정 자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광주-캐나다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이강하미술관은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신화, 현실이 되다'를 시작으로 한국과 캐나다의 예술가들이 서로 다

른 도시와 지역의 환경,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국제교류를 지속해 왔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한국-캐나다 북극 리서치 프로젝트는 광주와 캐나다 킨가이트의 예술가들이 직접 만나 공동의 관심사와 문화적 맥락을 탐구하고, 이를 예술적 실천으로 연결해왔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작품 교류를 넘어 서로 다른 지역의 역사와 삶,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는 지속적인 국제문화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선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는 광주와 캐나다 킨가이트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역사와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현재를 통해 미래를 함께 상상하는 자리"라면서 "'누이블랑쉬 토론토' 참여를 계기로 광주의 예술과 문화적 경험을 국제무대에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예술가들과 새로운 교류의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선 실장과 김설아 작가는 9월 28일 출국해 활동을 펼친 뒤 지난 5일 귀국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